

한마음한몸운동본부

## 지구시민교육 피앗누리 17기 모집

지구촌과 나를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피앗누리는 지구촌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과 현지 청년들이 자신이 가진 시간, 에너지, 열정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 공동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여 다양한 지역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함으로써 배움을 얻고 성장할 수 있는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모집공고 및 접수 : 10/6(일) ~ 11/10(일) • [www.obos.or.kr](http://www.obos.or.kr) 지원서 다운 및 이메일 접수  
오리엔테이션 : 11/23(토) ~ 24(일), 1박 2일 • 해화동 성령선교수녀회  
배움터 : 12/21(토), 1/4(토), 1/11(토), 1/18(토) • 명동 가톨릭회관  
현지활동 : 2/4(화) ~ 2/18(화) • 캄보디아 깜땡고 마을 및 반티프리업 장애인 기술학교  
국내체험 및 해단식 : 2/21(금) • 명동 가톨릭회관

보내는 사람

\_\_\_\_\_

\_\_\_\_\_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2.3.9 ~ 2014.3.8  
서울중앙우체국  
승인4151호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http://www.obos.or.kr)

1 0 0 - 8 0 9

✂  
접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접는선  
이 부분은 반으로 접으세요



One-Body One-Spirit MAGAZINE | [www.obos.or.kr](http://www.obos.or.kr)

한마음한몸 | 2013년 가을 | 열아홉번째이야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19  
AUTUMN





## “시리아에 희망의 등불을...”

2011년 3월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으로 인하여

사망자 **100,000명**    국내 피난민 **4,250,000명**  
 국외 피난민 **2,000,000명**    이중 여성과 아이들이 **75%**

“많은 사람들의 삶이 전쟁으로 인하여 산산 조각이 나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을 통해 시리아인들과 함께 해야 하며,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춥고 어두운 겨울에 시리아의 등불이 꺼지는 것을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시리아 카리타스 의장 앙투안 오도 주교 -

### 시리아 난민 돕기 계좌안내

- 입금계좌 우리은행 1005-785-119119 ■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후원문의 02.727.2267 ■ ARS 060.700.1117 (한 통화당 3,000원)



#### 표지이야기

캄보디아 브레이벳 지역학교에 다니는 '케이냐'는 학교에서 맞는 아침이, 그리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울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행복합니다.

한 마음 한 몸  
 2013년 가을호  
 열아홉번째이야기  
 www.obos.or.kr



시리아에 희망의 등불을	02
한마음한몸 25년을 회고하며	04
명사 초대석	
Special Story	08
희망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다 III	
월드 On Air	10
미래를 꿈 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장속으로	12
다시 생각 할 수 있었던 기회와 경험	
희망의 씨앗	14
아빠 힘내세요!	
“OBOS”를 사는 사람들	16
생애첫기부 1000번째 가족	
공감, 나누는 세상	18
나눔가게·나눔기업	
생애첫기부	20
OBOS NEWS	22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 발행일 2013년 9월 30일 통권 제19호  
 발행인 김용태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편집디자인 굿모닝컴 글·사진 커뮤니케이션팀 출력·인쇄 프로아트  
 주소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 02.774.3488 | obos@catholic.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http://www.obos.or.kr)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글/사진제공 한국교회사연구소 송란희 팀장

| 명사 초대석 |

## 강우일 주교님

“

이번호에는 지난호 장익(십자가 요한) 주교님 대담에 이어 1989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성체대회 사무총장직을 맡아 행사를 총괄하였으며,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교구 본부로 재출범한 1990년 1월부터 1994년 3월까지 그리고 1999년 6월부터 2002년 3월까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담당 주교로 재직하셨던 강우일 베드로 주교님과의 대담 내용을 축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



강우일(베드로) 주교는 1974년 12월에 사제 서품을 받은 후 1975년 1월 중림동 약현 본당 보좌, 1976년에 명동 본당 보좌, 1977년에 서울대교구장 비서를 거쳐 1978년에는 서울대교구 교육국장 및 홍보국장에 임명되었습니다. 이후 교구 참사 위원, 교구 인재양성위원회 위원, 사제평의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1985년 난곡동 본당 주임 신부로 사목활동을 하던 중에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로 임명되어 1986년 2월에 주교 성성식을 가졌으며, 2002년 7월에는 제주 교구장으로 임명되어 같은 해 10월에 제주 교구장에 착좌하였으며, 2008년 10월에는 주교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강우일 주교는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 당시 제44차 서울세계성체대회 사무총장직을 맡아 행사를 총괄하였으며, 그 과정 중에 태동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성장과 발전에 깊이 관여하여 성체성사의 신비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신자들이 생활화하도록 하는데 전력하였습니다.

**Q** ‘한마음한몸운동’이 시작될 때, 세계 성체대회 준비위원회 사무총장으로 일하셨는데, 이 운동이 시작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한국 교회가 1981년에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행사를 했고, 또 1984년에는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과 함께 103위 시성식도 치렀습니다. 대규모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세계 성체대회가 주기적으로 각국에서 열리는데, 성체대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성체의 신비를 이야기하고 기도하지만 단지 그 대회로서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성체대회가 한국에서 열리면 한국 교회의 정신적인 바탕에 어떤 흔적을 제대로, 그리고 뚜렷하게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거론하다가 성찬의 신비가 결국 <마르코 복음>에서 나오는 ‘오병이어(五餅二魚)의 기적’이 아니겠나 싶었습니다.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는 원초적인 사건을 현재화하는 측면, 또 예수님의 파스카 신비를 현재화하는

차원으로 일의 진행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때 장기기증, 헌혈, 안구기증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묶을 것이냐 해서 그럼 ‘한마음한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자는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처럼 한마음한몸운동의 근본 목적은 세계 성체대회의 정신을 지속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펼쳐 나가게 하는데 있었습니다.

**Q** 한국 성체대회(1988.10)를 기점으로 전국 본부가 설립되는 등 ‘한마음한몸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한마음한몸운동은 한국 성체대회를 기점으로 본격화되었습니다. 세계 성체대회 1년 전에 한국 성체대회를 개최한 이유는 워밍업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한마음한몸운동도 가열을 해야 했습니다. 세계 성체대회의 준비나 한마음한몸운동을 서울에서 우선 시작하였으나, 서울대교구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 교구에서 모든 신자가 함께하는 한국 교회의 잔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교회의에 도움과 허락을 청했습니다. 추계 주교회의 전에 이미 기초 작업이 있었고 주교회의에서는 그런 상황을 추인하였습니다.

**Q** 1989년 추계 주교회의에서 전국 본부를 해체하고 각 교구별로 ‘한마음한몸운동’을 전개하도록 결정하는데, 주교회의의 결정 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A** 한마음한몸운동이 성체대회의 열매로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회 기간 중이나 준비 기간 중에 한마음한몸운동에 관한 준비와 실제적인 일은 서울대교구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운동을 지속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단지 지속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주체를 어떻게 정해야 할 것인지를 논의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이 한국 교회 전체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각 교구에서 다양한 개별 활동을 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서울대교구에서 책임을 지고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랐습니다. 지역교회가 더 주체성



을 가지고 지역 사정에 맞게 한마음한몸운동을 잘 소화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운동으로 펼쳐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면 교구별로 한마음한몸운동의 정신을 잘 계승한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 것 같습니다.

**Q** 주교회의의 결정 후, 서울대교구 운동본부가 준비 과정을 거쳐 1990년 1월에 재출범합니다. 주교님께서도 이때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데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재출범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A** 제가 서울대교구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담당 주교가 되었고, 오태순 신부를 본부장으로 하여 1990년 1월에 재출범하였습니다. 세계 성체대회를 준비할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가톨릭 신자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둥은 미사참례입니다. 미사가 담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 나눔과 표현이 우리 신앙인들의 오늘의 현실과 연결이 안 된다면 미사는 그저 종교 의례로 끝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체대회나 한마음한몸운동을 계기로 신자들의 신앙생활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소망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체대회는 끝났지만 서울대교구 차원만이라도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생명 나눔, 생명 봉헌의 신비를 우리 생활 속에서 계속 이어가자 하는 마음으로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했습니다.



금전, 우리의 피, 우리의 장기를 나누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작은 표징입니다. 그 표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또 다른 생활의 분야로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원래 에너지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희생 제사로 끊임없이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니 근본정신이 헤이해진 면도 있습니다. 운동의 정신을 강조하는 노력은 초기에는 많이 했으나 이제 열매만 남은 형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마음한몸운동본부라는 열매가 서울대교구에 남아서 해마다 헌금도 많이 하며 그 결실을 가지고 세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성체대회가 결실을 맺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Q** 서울대교구 운동본부가 재출범한 후 담당 주교를 맡아 1994년 3월까지, 그리고 1999년 6월부터 2002년 3월까지 계셨는데, 두 시기 동안 주교님께서 ‘한마음한몸운동’의 전개와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신 일이나 방향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A** 입양결연 운동은 이미 수녀님들이 구체적인 실무를 담당했기에 잘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고 모금한 헌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서울대교구의 범위를 넘어서서 열매가 좀 더 널리 다른 이들에게 혜택으로 확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원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해외원조도 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다른 지역 교회와 나누는 활동을 고려하였습니다. 그래서 교우들 가운데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보다 좀 부족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인력들을 모아 양성하여 해외 봉사단으로 파견하는 부분까지도 실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오랫동안 ‘한마음한몸운동’에 관여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마음한몸운동을 하면서 제일 역점을 두었던 것은 정신적인 측면이었습니다. 파스카 신비를 우리의 현실과 연결시키는 부분이었습니다. 성찬의 신비를 신앙적으로 심화하는 작업과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하지 못했던 부



분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마음한몸운동도 그런 쪽을 강화한다면 물질적인 나눔의 차원을 넘어선 보다 차원 높은 정신 운동으로 계속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본당마다 본당 본부가 따로 있었음에도 생각만큼 호응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이 운동이 하향식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듯합니다. 밑에서부터 올라온 운동이 아니었고 행사를 준비하고 주최했던 교구 본부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본당 풀뿌리까지 확산되는 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힘에 부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신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합니다. 성체신심을 바탕으로 하는 운동이라는 인식을 신자들에게 계속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운동의 본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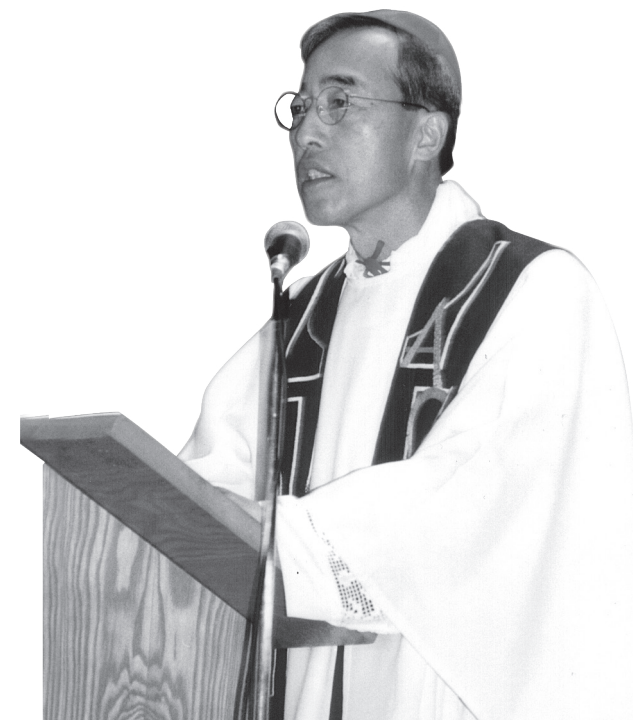
**Q** ‘한마음한몸운동’이 25년 동안 추진되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한마음한몸운동’의 방향과 관련해서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는지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A** 한마음한몸운동은 무엇보다 나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데 그 의의를 두어야 합니다. 모든 신자가 헌혈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한국 사회에서 자기 피를 뽑아서 남에게 준다는 것에 거부감이 많았습니다. 입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말 받아들이

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운동을 했고 한마음한몸운동이 시작되면서 한국 사회에 헌혈 운동이나 해외 입양의 문제점이 많이 부각되어, 한국 사회의 의식 전환에는 크게 기여했다고 봅니다. 한마음한몸운동의 사업 범위가 지금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 그래도 결국 근원은 예수님의 생명 나눔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의 행동 에너지의 근원은 성체성사의 신비로 끊임없이 회귀하여 힘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아이템이나 프로젝트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지탱할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정신을 위한 양성 과정이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모든 운동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본 정신을 확실히 다진 뒤 초창기로 돌아가 오늘의 현실과 다시 연결하는 재창립 운동을 해야 합니다. 수도회에서 창립 정신으로 돌아가 그것을 다시 연구하고 오늘의 현실에 반영하는 재창립의 과정을 거치듯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25주년을 재창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성체성사의 신비를 신자들에게 느끼게 해주어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고 제대로 실천하면 이 운동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





# 희망으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다

여름호 다음 이야기

អ្វីៗដើម្បីសន្តិភាព  
“Everything for peace”

08

한마음  
한몸

글 민경일 신부<sup>1)</sup>, 오인돈 신부<sup>2)</sup>



희망이 또 다른 희망을 낳다

: 캄보디아 장애인의 발, 메콩 휠체어

센터 내에는 프로덕션 워크숍 이외에 캄보디아 최대 생산량 규모의 휠체어 작업장이 있다. 1993년부터 시작된 메콩휠체어 작업장은 대부분의 휠체어 사용자가 메콩강 주위에 산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이름이 지어졌고, 작년 말까지 총 1만 5,211대의 메콩휠체어가 캄보디아 각지의 장애인에게 무료로 보급되었다. 메콩휠체어 작업장이 처음 시작된 1993년에는 모티베이션이라는 영국 NGO가 각종 자료를 모으고 캄보디아 장애인 상황에 대해 직접 기초 조사를 하는 등 토대를 닦는 것을 도왔고, 철재로 이루어진 세 가지 종류의 초기 디자인을 도입했다. 하지만 모티베이션이 철수한 후 캄보디아인 직원은 철재로 만들어진 외국 디자인이 캄보디아 실정에 잘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직접 캄보디아의 환경과 실정에 맞춘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는 철재뿐만 아니라 목재로 구성되었으며, 시골의 험한 길이나 우기를 대비하여 방향을 잘 잡고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발이 위치하는 부분에 작은 휠이 하나 더 부착되었다. 또한 바퀴는 100% 고무로 만들어져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졌고(차량 이동 기회가 많은 나라와 달리 안정감을 위해 무거운 휠체어가 실용성이 더 높다), 험한 돌길에도 펑크가 날 염려가 없어졌다. 캄보디아인의 경험에서 우려나온 아이디어로, 우기 때와 시골길에도 끄떡없는 캄보디아형 맞춤형 휠체어가 탄생한 것이다.



차별을 넘어 : 장애인과 여성도 하나로

캄보디아는 근현대에 25년 이상 내분을 겪은 나라이기에 다른 나라에 비해 전쟁에 의한 장애인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가난과 낙후된 의료서비스 때문에 병원을 찾지 못하거나 가셔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여 평생 장애인으로 사는 경우가 많다. 모

든 가난한 나라에서 그러하듯 캄보디아에서도 모든 이가 일자리를 찾고 있기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은 당연히 생계를 위한 직업시장에서 일반인에 비해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장애인은 이런 신체적인 장애나 경제적 취약성에 의한 어려움만을 겪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보다 더한 고통일 수 있는 차별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받고 있다.

또한 전쟁의 2차 피해라 할 수 있는 소아마비 등 감염이나 질병에 의한 신체장애, 또는 사고에 의한 장애는 성별의 구분 없이 생기는 것이기에, 사회적 차별까지 더해진 여성 장애인에 대한 도움과 그들의 자존감 회복은 더욱 절실했다 할 수 있겠다.

센터는 1997년에 처음으로 여학생에게 문을 열었으며, 이에 따라 그들에게 더 필요한 기술인 직조반과 재봉반이 새로 개설되었다. 그리고 그해 처음으로 15명의 여성 졸업생이 배출되었으며, 같은 해 말에는 20명의 여학생이 다음해의 정규반에 들어가기 위한 문해반에 입학했다. 이후 지금까지 농업반·목조각반·직조반·재봉반 등을 통해 300명 이상의 여학생을 배출한 반티에이 뿌리업은 오늘날 캄보디아 사회에서 성의 경계를 넘어 장애인에게 배움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센터는 이와 같이 직접적인 장애인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것 외에, 이들의 권리를 직접 옹호하기 위한 어드보커시 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불교 국가인 캄보디아에서는 ‘업(karma)’ 사상이 사람들과 사회의 사상을 강하게 지배한다. 업의 관점으로 볼 때, 자신의 장애는 전생의 업 때문이라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타인의 장애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가 존재하게 된다. 또한 장애를 사회문제로 보기보다는 개인의 문제로 국한하면서 장애인 스스로 자신의 존재감에 회의가 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장애인이 집안에 있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 안에서 반티에이 뿌

리업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인식 개선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장애인 학생에게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여러 워크숍 및 세미나를 진행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센터 출신의 졸업생을 통해 간접적인 어드보커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어드보커시 활동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활동은 주로 센터 독자적인 활동보다는 다른 장애인 단체와 함께 장애인 권리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연대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지난 2004년 ‘지뢰 모니터 리포트(Land Mine Monitor for 2004 Report)’의 출범식을 반디에이 뿌리업이 유치한 일도 이와 같은 활동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반지뢰 캠페인’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1997년에는 센터 직원 출신이면서도 JSC 시엠립 센터의 장애인 파트 책임자인 툰 차나렛(Tun Chanareth)이 ‘세계 반지뢰 캠페인’의 대표로서 노벨 평화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매해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 행사에는 센터 학생과 함께 행사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는 매달 정부 사회복지부 산하 장애인행동이사회(Disability Action Council) 및 여러 장애인 단체와 함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장애인 직업기술과 취업의 중요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논하고, 그 의논의 결과가 정부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로 캄보디아 정부는 2009년도에 장애인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Law on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공포했고, 현재는 후속 작업으로 구체적인 시행령을 만드는 데 여러 지혜를 함께 모으고 있다. 이렇게 센터에게 인간의 권리란 언제나 그 출발이며 목적이다. **겨울호에 계속** ㊦

1) 2002년 가톨릭 사제로 서품되어 지난 2009년부터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부분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2) 천주교 예수회 수도회 소속으로 2003년 가톨릭 사제로 서품되어 지난 2008년부터 JSC(Jesuit Service Cambodia) 소속의 반티에이 뿌리업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09

Special  
Story



#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

한마음  
한몸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캄보디아 현지단체인 NH(New Humanity)와 함께 캄퐁츠낭(Kompong Chhnang) 지방의 장애인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로 하여금 가정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감을 회복하고 인간으로서 존중 받을 수 있게 하며, 장애인 가정이 경제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농업기술훈련(벼, 천연비료 관리, 채소 농장관리, 가금류 사육, 어업, 축산 농장 관리 등) 및 기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살릭** (Salik)은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12살 소년입니다. 살릭은 캄퐁츠낭 지방의 보리보르(Boribor)에서 홀로된 어머니와 두 명의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다른 두 형제 역시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한 명은 정신 지체를 다른 한 명은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집을 떠나 다른 여인과 결혼하면서 살릭 가족의 경제적 상황은 매우 열악해졌습니다.

살릭은 태어난 지 2개월 되었을 때 심각한 고열에 시달리며 발작을 했지만, 어머니는 치료비가 없어 살릭을 큰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민간 치료사에게 맡겼습니다. 살릭은 3살이 되면서 발작 증세가 멈추었으나 정상 아이들처럼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겨우 몇 마디만 할 수 있었고 발음도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아이들에게 놀림과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살릭의 위생 상태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너무 부진하고 공부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중퇴를 하게 되었으며, 선생님이나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살릭은 행동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공동체의 의식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집을 방문하더라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방문객들과 만나는 것을 꺼려서 항상 집 뒤나 다른 곳으로 달아나곤 하였습니다.

살릭 가족 4명 중, 농사를 짓는 어머니와 쓰레기 및 현 그릇을 모아 파는 형 사택(Satek)만이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형 사택 또한 정신 지체를 앓고 있으나 살릭보다는 상태가 나은 편이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택은 이 일을 통해 매일 평균 1,500리엘에서 2,000리엘(원화로 약 6,500원)을 벌입니다. 하지만 사택과 어머니가 벌어들이는 총수입은 매일 식비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이 매우 슬프고 절망적이어서 앞으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꿈과 미래를 그릴 수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옳친 데 뉘친 격으로 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아 전과 같이 중노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작년(2012. 6)부터 살릭 가족은 캄보디아 현지 단체인 NH의 도움으로 LSI(Livelihood & Social Integration: 생계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살릭과 사택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위해 사회복지사로부터 특수교육을 받고 있으며, 어머니는 농업기술훈련과 수입창출을 위한 기술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금류 사육에 관한 농경기술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후에는 가금류 사육에 필요한 재료와 도구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현지 담당자로부터 다른 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기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비롯한 살릭 가족은 이 생계지원 프로그램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 돈을 식비에 보탬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장애로 인하여 와해되기 일보 직전이었던 가족 관계가 사회복지사의 노력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살릭의 어머니가 아이들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슬람교도인 살릭 가족은 아이들의 장애로 인하여 종교의식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는 회교사원과 공동체 의식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살릭 어머니는 절망의 시기에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해주신 캄보디아 현지 단체 NH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

11

월드  
On Air





## 다시 생각 할 수 있었던 기회와 경험

띠앗누리 16기 단원 이곤지

**지금**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서 지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종종 TV에서 가난한 나라의 현실을 보긴 했지만,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는 말대로 TV로 시청했을 때와 직접 가서 그들의 생활을 느낀 것은 많이 달랐습니다.

6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네팔에 내리는 순간 내가 얼마나 문명에 익숙해져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 내려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놀랐고, 짐을 챙겨 관광버스에 탄 순간 놀랐습니다. 네팔공항의 화장실은 어둡고 지저분했으며, 관광버스 또한 현지 수녀님께서 좋은 것으로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먼지 낀 작은 선풍기 몇 대가 전부였고 좌석은 몹시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좁은 좌석에 머리와 몸을 기대고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무더위 속에 8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 나의 땀을 식혀 주는 자연 바람과 선풍기, 그리고 기대 잘 수 있는 의자가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내게 될 포카라 올드버스파크 ‘해피홈’에

밤 10시쯤 도착했습니다. 밤 10시 이 곳은 그 어느 곳보다 어두워 랜턴 없이는 어떠한 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고 편히 쉴 수 있는 숙소를 기대하며 짐을 옮겼지만, 숙소에 들어간 순간 또한 놀랐습니다.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한두 명만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복도, 좁은 방바닥에 놓여 있는 매트 몇 개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좁은 화장실과 샤워실이었습니다. 일단 치킨 몸을 씻고 싶었지만, 샤워실이 한 개여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결국 우리는 샤워실 앞마당에서 빗물로 샤워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이 뽕 뚫린 곳에서 옷을 벗는다는 것 자체도 너무 어려웠고, 누군가가 볼까봐 무섭기도 하고 아직 어색하기만한 단원들과 함께 샤워한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이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의 피곤을 빗물로 씻어내며 행복해 했고, 비가 오면 오늘 밤은 샤워를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모두들 즐거워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생각이 많이 나는 것도 바로 이 자연 속에서의 샤워였습니다.

밤에 잘 때도 바퀴벌레가 나오지는 않을까, 쥐가 내 머리맡을 지나가는 것은 아닐까 무서워서 제대로 잠을 청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를 지나면서 생각보다 벌레가 많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매트는 우리들의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우리가 느꼈던 불편함이 하나 둘 사라졌고 네팔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즐기기 시작하자 네팔이 정말 아름다운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밖으로 나오면 만년설이 보였고, 이른 시간에



도 아이들이 일어나 부지런히 뛰어 다니는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반갑게 웃으며 인사해 주었고, 우리가 일을 할 때 다 같이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활동기간 동안 네팔사람들의 순수한 모습에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들의 아름다운 미소를 본받고 싶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활동하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 못 씻으면 어쩌나 고민할 땐 비를 내려주셨고, 해가 너무 쨍쨍해 아이들과 활동적인 놀이를 못 하면 어쩌나 걱정하면 구름이 와 해를 가려주었습니다. 딱 한번 활동시간 중에 많은 비가 왔는데, 이 또한 아이들과 비를 맞으며 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2주 동안 우리는 너무 행복했고, 2주를 회상하고 있는 지금도 너무 행복합니다.

띠앗누리는 내가 가지고 있던 막연함과 호기심을 모두 해결해 주었고, 네팔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활동을 통해

나의 무지함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뿐만 아니라 네팔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와 너의 ‘틀림’이 아닌 ‘다름’을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어서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네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내가 만났던 포카라 올드버스파크 아이들과 주민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겠다고 작은 결심을 해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



얇은 끈에 단해있고  
따스한 빛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  
결재서류 옆에 끼고  
인공의 조명불빛에 의지해  
현실이라는 짙은 막힌 복도를 걸어가  
중년의 가장이여~  
양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만큼이나  
그대를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 무게  
또한 크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들, 힘내세요.

- 한 중년의 아빠가 동료 아빠들에게 보내는 편지

# 아빠 힘내세요!

아버지를 응원합니다.

## 아빠의 뒷모습

여러분, 아빠의 뒷모습을 본 적 있으세요?  
“남편, 아버지, 나이”라는 무게를 동시에 짊어진  
우리 아빠의 처진 어깨



지난 8/7~11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된 '한국가톨릭스카우트야영대회'에서 센터가 진행한 '생명존중·자살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초등학교, 중학생들의 예쁜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빠를 응원하는 사진을 찍어 직접 쓴 편지에 넣어 아빠에게 보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아버지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김○훈(서울 방배동, 47세 직장인) 가족들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 같은 거요. 혼자라면 사표도 마음대로 쓰고 그만두고 싶을 때 있는데 가족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서○열(고양 백석동, 52세 자영업)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죠, 쉴 시간, 나만의 시간이 없어요. 자녀들 교육비용도 준비해야 하고 집도 따로 마련해야 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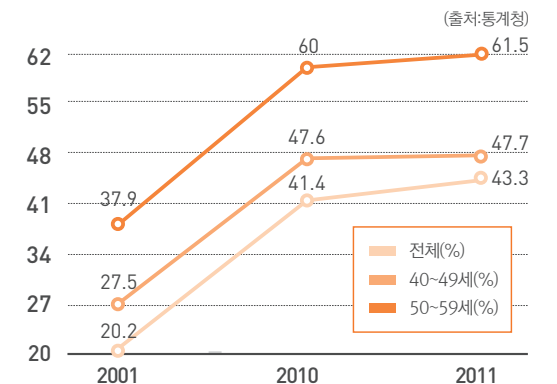
박○철(서울 명동, 49세 직장인)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자녀들 교육 문제일테구요. 정년 앞둔 사람들은 은퇴 후에 무엇을 할 건지가 가장 큰 걱정입니다.

정○혁(수원 인계동, 55세 자영업) 아유 다 힘들죠. 죽지 못해 사는 거죠. 회사일에 지치고 녹초가 되어 밤늦게 반겨주는 가족들도 없고...외롭죠.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위기에 처한 이 시대 우리의 아버지를 응원하고자 아버지 기(氣)살리기 프로젝트 “아빠, 힘내세요!”를 시작하며 문화콘서트와 언론연대 기획보도, 거리캠페인 등 자살예방교육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자살의 주요동기가 ‘외로움과 고독’이라고 합니다. 힘든 시기를 혼자서 극복하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 가족들의 관심과 돌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를 돌아보고 말을 걸어주세요. 그리고 들어주세요.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만이 축 처진 그 어깨를 펴게 할 수 있습니다.

### 알고 계신가요? 40~50대 아빠들의 자살률

#### 인구 10만명 당 10~50대 남성 자살률 추이



40~50대 중년남성의 자살률이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한국 40~50대 남성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평균 43.3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40~49세 남성의 자살률은 47.7%로 0.1% 증가했고, 50~59세 남성은 61.5%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4.8명이던 20년 전에 비해서 4배 가량 높아진 수치입니다. ※ 출처: 2012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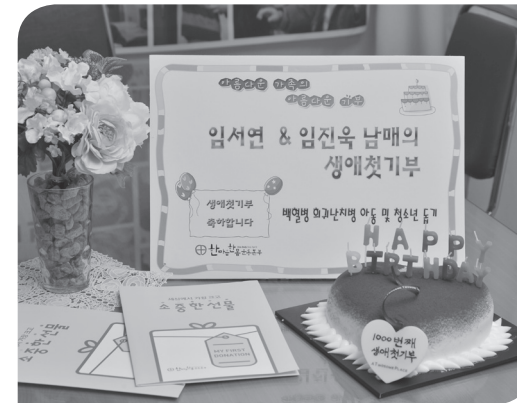


16

한마음  
한몸



본부의 '생애첫기부' 참여자가 1,000번째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2008년 한 할머니의 손녀 돌잔치 기부로 '생애첫기부' 운동이 시작된 이후 5년여만에 생활속 나눔운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13일 토요일 본부는 1,000번째 주인공인 임서연(2009.07.11 生), 임진욱(2012.12.11 生)의 가족을 본부에 초대해 기부증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작년** 둘째 진욱이를 갖기 전까지 제게는 너무나 버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기를 갖길 기도하며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 했습니다. 기도한지 1년이 되던 날까지 아기가 생기지 않자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기도하다 한 달이 지나자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의지로 치료비를 조금이나마 모을 수 있지만, 아이들의 경우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절대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주변에서 관심을 주어야 하는 대상이라 생각합니다. 평범한 가정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기에 더욱 그 아이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임신한 후 계속된 출혈, 병원에서 유산 될지도 모른다는 통보, 염색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말 등 매일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악몽을 매일같이 꾸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위해 걱정하다보니 난치병을 앓고 있는 자식을 둔 부모는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른

첫째 서연이의 생일을 맞아 서연이 또래의 아이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주고자 알아보던 중 신문 기사에 실린 생애첫기부 참여 가족의 인터뷰를 보게 되었고 생애첫기부를 통한 '백혈병·희귀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서연, 진욱 어머니 민지혜 씨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기부하는 습관을 길러주면 평생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유로운 사람으로 자랄 것입니다.

이렇게진행됩니다

전화신청	본부방문 일정협의	생애첫기부 전달식	사진액자 및 감사장 제작	우편발송	사진액자 및 감사장 수령
------	--------------	--------------	---------------------	------	---------------------

※ 본부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전달식 없이 입금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계좌안내 백혈병·희귀난치병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은행 454-005324-13-044

지구촌 빈곤 아동 및 청소년 돕기 우리은행 1005-684-077777

예 금 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참여신청 및 문의 02.727.2267



내 아이에게 주는 첫 선물

1,000번째 가족 탄생





# 나눔으로 만드는 더 큰 세상 2013 사랑 프로젝트

우리 이웃의 가게·기업에 福이 밀려옵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에 참여하세요. 나눔의 참 행복을 느껴보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이란?

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 또는 고객들의 성금을 전달해 사랑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한답니다. 가게의 규모와 종류는 다르지만 행복나눔을 실천하겠다는 마음만은 똑같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가게와 기업에게는 사회공헌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나눔가게·나눔기업**

1년 이상 정기적인 후원(금액 무관)을 하신 가게·기업 후원자  
연간 1천만원 이상 기부를 하신 가게·기업 후원자 분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을 신청해 주시면  
예쁘게 디자인된 나눔가게·나눔기업 현판과  
전용 저금통, 안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나눔가게·나눔기업 카운터 및 입구에 나눔현판을 부착하시면  
나눔의 의미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이 사랑나눔을 하는 방법

- ♥ 매출·수익의 일정액을 매달 지속적으로 기부합니다.
- ♥ 고객들이 저금통에 넣어주신 성금을 전달해 사랑나눔바이러스를 전달시킵니다.
- ♥ 따뜻한 실천사례를 전해주시면 본부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한 나눔가게·나눔기업 홍보를 해 드립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에 참여해 사랑나눔의 행복을 느껴세요.  
나눔가게·나눔기업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701-166291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참여문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커뮤니케이션팀 02.727.2263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나눔가게·나눔기업

## 나눔 가게·나눔기업 리스트

- |  |                             |                                      |
|--|-----------------------------|--------------------------------------|
| 1호점 서울 은평구 수색동 미성슈퍼                    | 32호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오색떡집    | 67호점 천안 서북구 성환읍 영농조합법인 은성가족식품        |
| 2호점 경북 포항시 북구 득량동 손혜어                  | 33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2동 두덴호프       | 68호점 안산 단원구 원곡동 해피텔레콤 안산점            |
| 3호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산삼감정협회                  | 34호점 서울 송파구 석촌동 김민혜어테크      | 69호점 서울 용산구 청파2가동 광명사진관              |
| 4호점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주)이피코리아              | 35호점 전남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가마솔보신탕  | 70호점 서울 관악구 성현동 누리에헤어                |
| 5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1동 이미지넷                   | 36호점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안젤리 성물방     | 71호점 부산 북구 덕천동 The Sara              |
| 6호점 서울 종로구 필운동 (주)계문사                  | 37호점 서울 마포구 신수동 코코가츠        | 72호점 천안 원성동 파리포송제과점                  |
| 7호점 서울 강남구 대치4동 예담명가                   | 38호점 서울 강서구 방화1동 스피드메이트 방화점 | 73호점 서울 금천구 가산동 (주)아남정보기술            |
| 8호점 인천 동구 송림동 참사랑성물                    | 39호점 대구 동구 지묘동 아숨심리치료센터     | 74호점 서울 양천구 목4동 안경매니저                |
| 9호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정유경 심리치료연구소            | 40호점 서울 종로구 광희동 다모아편의점      | 신목중점                                 |
| 10호점 서울 강남구 수서동 (주)무원 NB건축사무소          | 41호점 서울 금천구 시흥동 로사나눔터       | 75호점 서울 강서구 양천로 아름다운재가센터             |
| 11호점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로사리오               | 42호점 서울 금천구 시흥동 우리파부비노기과    | 76호점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해법논술                 |
| 12호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명동칼국수                | 43호점 서울 종로구 안국동 투섬플레이스 안국점  | 야탑목련교실                               |
| 13호점 성남 분당구 서현동 소온 정신과의원               | 44호점 서울 광진구 중곡4동 호프나라       | 77호점 경남 함안군 칠원면 타이아마트/세차장            |
| 14호점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레인보우통신                | 46호점 부산 동구 초량3동             | 78호점 서울 마포구 대흥동 베스트스토어               |
| 15호점 서울 성수동 (주)유라스텍                    | 기후변화에너지재단센터                 | 79호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성원 부동산               |
| 16호점 대전 유성구 도룡동 (주)명산                  | 47호점 충남 당진 당진읍 상아치과         | 80호점 서울 양천구 신정7동 참살이돈타령              |
| 17호점 대전 유성구 도룡동 (주)장어대가                | 48호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우리마음심리상담소   | 81호점 서울 서대문구 염천동 독립문치과               |
| 18호점 서울 마포구 서교동 형광의 낙화, 눈              | 49호점 서울 종로구 광창시장 하층 삼성상회    | 82호점 서울 강동구 암사3동 사계절 피부샵             |
| 19호점 서울 강북구 수유3동 토마토 도시락               | 50호점 서울 종로구 종로 5가 송월타월      | 83호점 서울 종로구 인의동 보나점                  |
| 20호점 강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힐인마트                 | 대상대리점                       | 84호점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 연세내과의원              |
| 21호점 전남 여주시 화장동 푸른농장2호                 | 51호점 서울 서초구 서초동 느낌 좋은 집     | 85호점 서울 송파구 잠실동 농협안심                 |
| 22호점 전남 여주시 소라면 중림리 푸른농장 중림점           | 52호점 강원 강릉시 포남동 포남세탁소       | 축산물 잡실점                              |
| 23호점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태영프라자 약국              | 53호점 부산 동래구 수암동 시은사         | 86호점 경기 화성시 북양동 쓰리디엠디                |
| 24호점 충북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고 리 의영학원           | 54호점 부산 동래구 수암동 (주)타비스애니자임  | 87호점 충북 청주시 상당구 매덕동 우연치킨             |
| 25호점 서울 성북구 동선동1가 하티헤어                 | 55호점 경북 구미 황상동 뽕뽕기카노        | 닭강정                                  |
| 26호점 서울 구로구 개봉동 주인공 개 봉 센터 공부습관트레이닝 센터 | 56호점 경북 울진 북면 부구리 원자로 식당    | 88호점 부산 해운대구 채송2동 린포크                |
| 27호점 서울 강동구 고덕동 미리암 약국                 | 57호점 서울 구로구 구로동 옥상위의 고양이    | 장터국밥                                 |
| 28호점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한국매점                  | 58호점 서울 마포구 도화동 하늘공별공       | 89호점 서울 금천구 독산3동 민승웰빙기               |
| 29호점 서울 중구 명동 주날개밀                     | 59호점 대구 동구 신암5동 숲과 황토       | 90호점 경기 화성시 동탄동 김지영헤어                |
| 30호점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솔도시락 포항 문덕점        | 60호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로아쥬스        | 91호점 서울 서초구 양재동 별난횃집                 |
|  | 61호점 인천 연수구 연수1동 취중천국       | 92호점 충남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JARED LUTHER 어학원 |
|  | 62호점 서울 강남구 논현동 율리아나 웨딩     | 93호점 경남 김해시 외동 이가네우미머리관              |
|  | 63호점 서울 관악구 행운동 경희부부한의원     | 94호점 서울 중랑구 면목5동 다연마트                |
|  | 64호점 수원 영통구 원천동 까페플로린       |                                      |
|  | 65호점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땀큐공창       |                                      |
|  | 66호점 인천 서구 마전동 원 인테리어       |                                      |





# 생애 첫 기부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 이성호 (2012.05.29생  
父 이시현/母 이하영), 20만원
- 오윤우 안드레아(2009.06.07생  
祖母 임영은), 10만원
- 홍상현 (2013.05.26생  
祖母 이영화), 10만원
- Hannah Childs (2012.06.19생  
父 Simon Childs/母 김나연), 50만원
- 김창현 요셉 (2008.05.01생  
父 김지식/母 김경란), 10만원
- 배도현 다니엘 (2012.03.20생  
父 배길수/母 도현정), 100만원
- 오윤진 (2012.04.14생  
父 오항석/母 이은희), 100만원
- 문주연 베로니카 (2012.06.16생  
父 문정운/母 박규남), 30만원
- 이승수 스테파노 반델리 (2012.06.13생  
父 이종혁/母 김희선), 100만원
- 오혜준 (2012.06.19생  
父 오두원/母 김혜정), 10만원
- 김연아 엠마 (2012.06.29생  
父 김호진/母 박주형), 20만원
- 조가은 (2012.06.21생  
父 조웅범/母 권도연), 500만원
- 차주원 (2012.07.08생  
父 차재철/母 최혜영), 10만원
- 이해랑 (2012.05.24생  
父 이철민/母 김미주), 30만원
- 고해근 바오로 (2012.06.26생  
父 고대경/母 김나리), 50만원
- 오윤찬 (2013.03.13생  
父 오지석/母 김진영), 10만원
- 김요한 세례자요한 (2007.06.18생  
父 김건수/母 백미영), 10만원
- 이수윤 베아트릭체 (2012.07.30생  
父 이관수/母 이지영), 100만원
- 권도윤 (2012.07.13생  
父 권병준/母 박지향), 20만원
- 이은서 율리아나 (2012.06.20생  
父 이호준/母 전지혜), 30만원
- 조형우 (2012.07.10생  
父 조희상/母 송인선), 100만원
- 최아윤 에스텔 (2012.07.02생  
父 최민환/母 김선영), 300만원
- 김선예 클로틸다 (2012.06.03생  
父 김우중/母 최재은), 100만원

- 이지호 (2010.06.21생  
父 이동혁/母 허수빈), 10만원
- 이승호 (2013.03.14생  
父 이동혁/母 허수빈), 31만4천원
- 신태윤 (2012.07.03생  
父 신봉재/母 김혜민), 100만원
- 김종현 미카엘 (2012.07.06생  
父 김태균/母 이선희), 100만원
- 장선울 비시아 (2009.04.12생  
父 장등수/母 정승은), 25만원
- 장은울 글로리아 (2011.05.10생  
父 장등수/母 정승은), 25만원
- 정현진 베드로 (2012.06.26생  
母 김나래), 30만원
- 박수진 베네딕도 (2013.03.15생  
父 박계기/母 서예민), 10만원
- 박재윤 안드레아 (2012.06.06생  
父 박동현/母 강자선), 50만원
- 김선욱 사도요한 (2012.07.04생  
父 김영중/母 김성희), 100만원
- 임서연 헬레나 (2009.07.11생  
父 임치환/母 민지혜), 금액비공개
- 임진욱 사도요한 (2012.12.11생  
父 임치환/母 민지혜), 금액비공개
- 황예원 (2010.05.02생  
父 황동민/母 이우현), 100만원
- 황은총 (2014.02.11 출산예정  
父 황동민/母 이우현), 100만원
- 이영우 이사벨라 (2009.04.18생  
父 이종규/母 백윤정), 10만원
- 이정우 루가 (2011.04.19생  
父 이종규/母 백윤정), 10만원
- 김시온 (2012.06.22생  
父 김충일/母 이주희), 30만원
- 박지호 안드레아 (2007.05.23생  
父 박민균/母 김태연), 30만원
- 유은재 데레사 (2012.07.06생  
父 유준영/母 홍혜경), 30만원
- 노서현 요안나 (2011.07.06생  
父 노현우/母 이미지), 50만원
- 신은상 (2013.06.13생  
父 신승찬/母 김선희), 100만원
- 조은솔 (2012.08.03생  
父 조성흠/母 석은영), 500만원
- 김지환 (2012.07.05생  
父 김종민/母 심민경), 20만원
- 남시우 베르나르도 (2012.08.17생

- 父 남상훈/母 김서유), 50만원
- 유다울 플로라 (2012.07.30생  
父 유헌기/母 노유진), 20만원
- 박다인 (2013.04.10생  
父 박철수/母 조근혜), 50만원
- 천수정 (2013.04.06생  
父 천정우/母 강재민), 30만원
- 이하엘 크리스티나 (2012.07.24생  
父 이경인/母 홍혜림), 365천원
- 범준우 아우구스티노 (2012.08.01생  
父 범지원/母 고준경), 200만원
- 김지유 (2012.08.16생  
父 김충성/母 박선화), 100만원
- 김어진 남종삼 요한 (2012.07.12생  
父 김정태/母 김지혜), 12만원
- 백하윤 안나 (2012.07.11생  
父 백종일/母 조지혜), 30만원
- 이주원 에스텔 (2011.05.03생  
祖父 이종득), 50만원
- 권정우 세례자요한 (2012.06.27생  
父 권민중/母 김정은), 100만원
- 서민지 마리스텔라 (2012.07.17생  
父 서영부/母 이정은), 50만원
- 김재원 토마스 아퀴나스 (2012.01.23생  
父 김형철/母 김나경), 100만원
- 송지호 데레사 (2011.08.19생  
父 송병일/母 서현민), 30만원
- 김세린 (2013.04.08생  
父 김경태/母 서유진), 30만원
- 정시후 스테파노 (2012.07.15생  
父 정승록/母 조민숙), 50만원
- 서정빈 (2012.12.17생  
父 서원희/母 황은주), 100만원
- 박정현 그레고리오 (2003.09.08생  
父 박희병/母 성윤화), 50만원
- 박지호 베네딕도 (2012.07.17생  
父 박희병/母 성윤화), 50만원
- 고영훈 (2013.04.13생  
父 고윤석/母 성민정), 10만원
- 양윤서 (2013.04.14생

- 父 양근석/母 박주현), 100만원
- 사온 베네딕도 (2012.07.13생  
父 사영훈/母 김은미), 10만원
- 김재하 비오 (2012.07.19생  
父 김태형/母 이보람), 30만원
- 송서현 (2013.04.17생  
父 송경수/母 김선영), 130,417원
- 차규림 (2013.03.28생  
父 차규상/母 고예림), 30만원
- 양소연 (2012.08.16생  
父 양희동/母 장진화), 10만원
- 양소영 (2012.08.16생  
父 양희동/母 장진화), 10만원
- 송리사 사라 (2012.03.02생  
父 송근우/母 박유나), 30만원
- 박지호 미카엘 (2012.07.02생  
父 박용래/母 조유미), 10만원
- 광호연 (2012.07.28생  
父 광호석/母 박소영), 10만원
- 이윤영 안나 (2012.08.31생  
父 이대근/母 윤기연), 50만원
- 박유나 스텔라 (2012.03.02생  
父 박성기/母 한선영), 30만원
- 정하연 (2012.08.14생  
父 정인주/母 홍선희), 50만원
- 이수현 (2013.07.22생  
父 이정원/母 이상인), 10만원
- 이지호 레오 (2012.08.30생  
父 이동현/母 김서하), 10만원
- 김재윤 (2012.08.10생  
父 김남훈/母 최선형), 100만원
- 임은진 (2012.07.11생  
父 임경완/母 배수현), 50만원
- 류현준 다니엘 (2012.07.26생  
父 류성민/母 안옥재), 50만원
- 오시현 라파엘 (2012.06.25생  
父 오강민/母 이혜정), 50만원
- 권태리 미카엘라 (2012.06.22생  
父 권혁재/母 이수경), 30만원
- 권태린 가브리엘라 (2012.06.22생  
父 권혁재/母 이수경), 30만원
- 이루피나 (2012.07.15생  
父 이두상/母 이금조), 30만원
- 이종현 대건안드레아 (2012.08.27생  
父 이인기/母 이우영), 50만원
- 조윤호 발렌티노 (2012.08.31생  
父 조동현/母 안지원), 30만원

- 한승주 (2012.08.03생  
父 한주훈/母 김유리), 100만원
- 성윤준 (2013.05.27생  
父 성락주/母 엄선애), 10만원
- 조유솔 (2011.08.05생  
父 조상환/母 최윤정), 30만원
- 신지민 (2012.08.23생  
父 신상호/母 정연주), 100만원
- 김미현 로사 (2012.07.21생  
父 김민배/母 이윤희), 50만원
- 김중현 요셉 (2012.07.21생  
父 김민배/母 이윤희), 50만원
- 최문기 (2013.04.29생  
父 최호성/母 허수희), 50만원
- 김민지 (2013.04.06생  
父 김진승/母 노아네스), 10만원
- 김은준 (2011.07.12생  
父 김대희/母 류현아), 20만원
- 신지우 아우구스티노 (2012.08.08생  
父 신창훈/母 신소영), 88만원
- 윤현빈 로마노 (2012.08.09생  
父 윤영준/母 박효은), 100만원
- 유서진 (2012.08.10생  
父 유혁주/母 이고은), 365천원
- 이가은 스텔라 (2012.08.31생  
父 이규형/母 김윤희), 365천원
- 윤요한 요한 (2008.06.03생

- 父 윤장희/母 안정아), 50만원
- 윤수환 스테파노 (2011.06.17생  
父 윤장희/母 안정아), 50만원
- 윤분도 베네딕도 (2013.07.05생  
父 윤장희/母 안정아), 200만원
- 황재울 클라라 (2012.08.12생  
父 황규명/母 박선민), 80만원
- 김시은 클라라 (2012.09.17생  
父 김태윤/母 최지혜), 150만원
- 김시은 아이린 (2012.10.30생  
父 김승배/母 윤정미), 50만원
- 김지윤 (2012.10.03생  
父 김찬현/母 강보영), 120만원
- 김가령 가브리엘라 (2011.09.05생  
父 김교영/母 양은희), 30만원
- 김민기 (2012.08.24생  
父 김대환/母 이미경), 10만원
- 김도담 다니엘 (2012.08.21생  
祖母 신필옥), 10만원
- 장서윤 레지나 (2012.04.20생  
父 장덕현/母 황인숙), 100만원
- 한스텔라 스텔라 (2012.08.20생  
父 피재환/母 한소진), 200만원
- 이승준 레오 (2011.03.14생  
父 이영철/母 남영주), 177천원
- 한미소 (2013.05.28생  
父 한은섭/母 김인혜), 10만원

- 이서진 베네딕도 (2012.08.24생  
父 이승준/母 서민지), 100만원
- 김규리 클라라 (2012.08.06생  
父 김창우/母 임은지), 100만원
- 황승현 (2012.08.28생  
父 황준하/母 황윤진), 200만원
- 윤엘리 (2013.07.19생  
父 윤현태/母 강수미), 30만원
- 양지호 (2012.08.12생  
父 양시훈/母 이연주), 50만원
- 박연우 로사 (2012.08.23생  
父 박재희/母 이영식), 30만원
- 전승진 (2012.10.11생  
父 전수종/母 장지원), 50만원
- 이은우 (2012.09.09생  
父 이종민/母 안해선), 30만원
- 박채연 (2013.05.28생  
父 박진규/母 김은희), 10만원
- 김라희 마리아 (2012.08.29생  
父 김대우/母 박주미), 100만원
- 김라온 아우구스티노 (2012.08.29생  
父 김대우/母 박주미), 100만원
- 한준수 (2012.09.10생  
父 한필정/母 이현주), 40만원
- 오훈석 (2012.06.21생  
父 오강혁/母 박지혜), 10만원
- 이충은 미카엘 (2012.09.09생

- 父 이진표/母 박현진), 30만원
- 이은서 (2013.05.20생  
父 이진관/母 황유진), 30만원
- 최윤호 야고보 (2013.05.13생  
父 최영준/母 문송희), 30만원
- 하지우 (2013.05.09생  
父 하기성/母 이민정), 00만원
- 백준석 (2012.09.09생  
父 백상범/母 어진희), 20만원
- 전효성 세례자 요한 (2012.09.03생  
父 전훈/母 김유경), 100만원
- 이다윤 (2012.09.04생  
父 이상준/母 김지원), 365천원
- 박하윤 비비안나 (2012.08.28생  
父 박태현/母 신미진), 50만원
- 신민교 (2012.10.12생  
父 신준호/母 김은경), 121,012원
- 최재화 (2012.09.04생  
父 최경환/母 심연균), 20만원
- 이성하비오 (2012.08.27생  
父 이용환/母 박설희), 365천원
- 박예원 (2012.09.05생  
父 박준수/母 임다은), 100만원
- 홍지유 마리아 이사벨라 (2012.08.29생  
父 홍원기/母 김민지), 100만원

## 기념일 기부

'건강하게 한 해 잘 자라줘서 고마워!' 첫기부에 이어서 꾸준히 생일 때마다 두번째, 세번째 기부합니다. 자녀의 생일이나 입학 등 기념일에 값비싼 선물 대신 아이 이름이 적힌 후원 증서를 안겨주면 자연스레 '나눔 교육'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어 기억나지 않는 장난감이나 옷 선물을 받은 것보다, 1년에 한번씩 기부할 때 받은 감사장이 쌓여있는 것을 보면 부모님보다 더 기뻐할 것입니다.

### 생애 두번째 기부

- 김예은 가타리나 (2012.04.28생  
父 김남호/母 오혜순), 113,900원
- 김하윤 요안나 (2011.06.07생  
父 김진민/母 성영실), 200만원
- 이주은 (2012.07.01생  
父 이철환/母 김지환), 100만원
- 두하준 안드레아 (2011.07.21생  
父 권혁재/母 이수경), 100만원
- 두하윤 다니엘 (2011.07.21생  
父 두원균/母 이서형), 100만원
- 김리예 율리아 (2011.05.23생  
父 김선준/母 장진영), 36만5천원
- 조서현 베드로 (2010.06.19생  
父 조낙기/母 조선미), 30만원
- 김유현 프란치스코 (2012.07.29생  
父 김도연/母 류미숙), 30만원
- 신윤아 소피아 (2011.07.17생  
父 신호철/母 조근영), 10만원

- 이수인 베로니카 (2009.06.28생  
父 이정원/母 이상인), 10만원
- 한건우 (2012.07.29생  
父 한동석/母 김나리), 100만원
- 신은규 (2012.08.14생  
父 신중현/母 이윤주), 365천원
- 신지민 (2011.08.03생  
父 신진호/母 김유정), 365천원
- 서지성 다니엘 (2003.06.22생  
父 서상근/母 서영순), 30만원
- 서희성 마르코 (2011.08.13생  
父 서상근/母 서영순), 30만원
- 정이원 루치오 (2011.08.22생  
父 정세욱/母 이윤민), 50만원
- 정원석 미카엘 (1984.08.02생  
父 정우동/母 임현숙), 10만원
- 한승우 라파엘 (2010.07.29생  
父 한상훈/母 김주연), 20만원
- 박정원 (2011.08.17생  
父 박상중/母 장지영), 10만원
- 최하진 마리아 (2013.05.24생

- 父 최동범/母 최이나), 100만원
- 이은성 (2011.08.24생  
父 이태형/母 허서현), 110,824원
- 이자우 엘리사벳 (2011.09.05생  
父 이택근/母 이경화로사), 365천원
- 유은준 (2012.09.04생  
父 유형석/母 이지원), 30만원
- 송예은 에스텔 (2009.09.03생  
父 송재욱/母 이혜진), 12만원

### 생애 세번째 기부

- 홍지아 그라시아 (2010.08.05생  
父 홍윤기/母 지아림), 20만원
- 이자민 에스텔 (2011.07.13생  
父 이윤준/母 우혜영), 365천원
- 홍은진 마리아 (2010.06.15생  
父 홍원표/母 박선영), 20만원
- 김예윤 (2012.06.27생  
父 김주환/母 유효빈), 10만원
- 김성윤 (2012.06.27생

- 父 김주환/母 유효빈), 10만원
- 이서안 마테오 (2010.07.01생  
父 이혁승/母 신해선), 20만원

### 생애 다섯번째 기부

- 김동하 다니엘 (2008.08.04생  
父 김중영/母 조익희), 100만원

### 생애 여섯번째 기부

- 조효은 베르나르도 (2007.08.20생  
父 조남현/母 김자영), 100만원

### 아름다운 부부의 기부

- 남현욱 도미니코, 오유미 보나 (결혼기념일 2012.05.19), 36만5천원
- 고구령 스테파노, 박인순 마리아 36만5천원





# OBOS NEWS

## 지구시민교육프로그램 떠났누리 16기



지구시민교육 프로그램 떠났누리 16기가 지난 8/13(화) 해단식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하고 지구시민으로서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떠났누리 16기는 빈곤, 인권, 환경, 청년을 주제로 4차례의 배움터를 거쳐 7/26(금)~8/9(금)까지, 14박 15일 동안 네덜 포카라 올드버스파크에서 현지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8/13(화) 국내체험 활동 및 해단식을 끝으로 전 단원이 공식적인 모든 활동을 건강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 몽골/캄보디아 현장방문



6월 KOICA(한국국제협력단) 시민사회 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캄보디아와 몽골 사업장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본부는 현지에서 활동하는 JSC(Jesuit Service Cambodia)와 몽골 메리워드 청소년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빈곤을 없애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중서울 레지아 직속평의회 의원” 대상 자살예방교육 개최

9/7(토)~9/8(일) 이틀동안 “중서울 레지아 직속평의회 의원 연수”에서 40여 명의 교육생들과 함께 한국형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인 ‘보고듣고말하기’와 ‘정신질환의 이해’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수료생들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함께 할 예정입니다.



## 자살위기중재훈련 전문가 양성교육 ASIST 교육 개최

8/22(목)~8/23(금) 2일간 자살예방활동가양성교육의 일환으로 성직자, 수도자 20명을 대상으로 한 ASIST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자살위기중재훈련 전문가 양성 교육인 ASIST 교육수료자들은 앞으로 자살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 온라인 등록 신청자를 위한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구축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록 신청 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를 통한 방법만 가능하였으나,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을 위해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를 추가로 구축하면서 온라인 사용자가 등록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홈페이지 www.obos3042.or.kr)

## “2013 가톨릭스카우트대회 자살예방캠페인” 성황리에 마쳐

한국가톨릭스카우트 주최로 지난 8/7(수)~11(일)까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세계잼버리수련장에서 2013 한국가톨릭스카우트 야영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대회에는 전국 교구 청소년과 학부모, 스카우트 지도자 등 1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전국 교구, 남자·여자 수도회, 기타 교회 기관 등 15개 단체에서 마련한 전문 과정 활동과 스카우트 캠프 활동 등을 함께 펼치며 생명과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가족을 사랑하며 이웃에 봉사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이 대회에 함께 하며 ‘아빠 힘내세요’를 주제로 야영대회 현장에서 자살예방캠페인을 진행해 많은 이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환우지원 현황 (2013년 6~8월)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단위: 만원)

성명	병명	병원	지원금액
박OO(여/5세)	난소암	국립암센터	1,000
마르OO(여/8세)	지중해성빈혈	인하대병원	1,000
허OO(남/20세)	연부육종	국립암센터	1,000
박OO(남/39세)	췌장암	부천성모병원	540
이OO(남/53세)	신부전, 위출혈 등	서울대병원	600
편OO(여/10세)	속발성외사시	인천성모병원	320
김OO(여/34세)	만성신부전(신장이식)	경희의료원	800
임OO(여/39세)	만성신부전(신장이식)	고대안암병원	700
김OO(여/56세)	간암(간이식)	고대안암병원	900
이OO(여/49세)	만성신부전(신장이식)	서울성모병원	800
송OO(남/45세)	당뇨, 신부전(신장이식)	의정부성모병원	800
최OO(남/30세)	만성신부전(신장이식)	서울성모병원	800
김OO(남/42세)	간경화(간이식)	서울대병원	900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품칠하는 곳

## ‘장기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나는 이웃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KONOS

등록번호

이름	세례명	본당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장기기증 등록증 발송을 위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이동전화	
정보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input type="checkbox"/> 우편물
기증형태   (중복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뇌사 시 장기등 기증	<input type="checkbox"/> 안구(각막) 기증	
운전면허증에 장기기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장기기증이식에관한법률” 제 1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한마음한몸장기기증센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법정대리인의동의 (미성년자의 경우)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 ▶▶▶ 첨부서류

- ① 신청인이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②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 ‘하루 100원 모으기’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이름(세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3,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3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출금일자   <input type="checkbox"/>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0일	● 출금통장에 “한마음한몸”이라 표시되며, 매달 약정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 연말 소득용 납입영수증 발급됩니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계좌주 주민등록번호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이 동의합니다 계좌주 | 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서명)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①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③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